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사.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04월 02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엄**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유*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박**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div data-bbox="491 703 912 1258"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478 1357 1077 1391">TOPIC 1. 혐오발언, 혐오범죄와 장애인의 존엄성</p> <p data-bbox="478 1442 1399 1814"> 유* :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은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친구끼리 욕을 할 때도 “아 너 장애인 같아”라는 말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사용하고 ‘병X’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말들이 무의식 속에서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키운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지하고 장애인을 노린 특정 범죄의 원천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내포하는 단어를 만연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장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언어습관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p> <p data-bbox="478 1868 1399 2065"> 엄** : 장애인 혐오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혐오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비장애인들의 대다수는 장애를 결함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그들의 장애를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장애를 인식하고 정체성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그것을 배척하며 그들의 정체성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p>							

얼마나 말도 안되는 상황인가? 그들의 장애를 폄하하거나 배척 하지 않고, 같은 사람으로서 바로 보는 시각부터가 필요하다.

김** : 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혐오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언어측면에서 그렇다. 아무렇지도 않게 ‘병신’ ‘장애인’ 등의 말들이 비장애인을 비하할 때 쓰인다. 그런 말들이 오고간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지낸다. 혐오적인 말이라고 자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혐오와 배척은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폭력을 저지른다. 왜 이토록 쉽게 폭력을 저지르는 것일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약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약자로 인식해서 돕고 지켜주기 보다 자신들이 쉽게 어떤 폭력을 저지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에 언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장애인을 포함한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들은 우리 생활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를테면, 친구들 사이에서 비방용 욕을 쓸 때. 장애인, 병신 과 같은 말들을 생각없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말들은 그저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지, 정말 장애인을 욕보일 악의는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어라는 건 결국 무의식으로 흡수되어 결국 의식되는 것이기에-사소해 보이는 언어습관에서부터 이를 고치려고 노력해야 할 듯 싶다.

TOPIC 2.장애인의 성/디보티즘

유* : 장애인 성도우미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생소한 혹은 불쾌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장애인 또한 욕구를 지닌 인간이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욕구를 외면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장애인 성도우미를 합법한 사례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성적 욕구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엄** : ‘장애’를 성적 취향의 코드로 분류하여 ‘디보티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사람을 사랑하고 나서 그 사람의 장애까지 포용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보았다. 그런데 비정상인이 장애인의 장애를 보고나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에 성적인 흥미를 느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장애만 바라보는 관점이며 자신에 비해 약자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아직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라 장애인에 대한 이슈 중 아직 알려지지 않는 주제가 많다는 것, 그 이야기들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했다.

김** : ‘디보티즘’이라는 용어를 이 책에서 처음 접해봤다. 아직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환경이 개선이 필요한 한국에서는 생소한 용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용어가 살짝 소름이 끼쳤다. 장애를 성적 취향으로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봤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디보티즘’은 자신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 논리에서 보면 소아성애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아직 생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 연구를 해봐야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면, 이것이 성적취향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토론하면 좋겠다.

박** : 많은 성적 취향 중에 디보티즘도 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자 외적인 미에 대한 기준이 있듯이 디보티즘도 절단된 미에 대해 끌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외적인 미에 끌려 사랑하는 것인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약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이 사람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단순한 사랑인지 소아성애자와 같은 범죄자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TOPIC 3.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유* :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인 배려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시설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사용하기 어려운 곳들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장애인 시설의 부족은 장애인들을 더욱 사회 밖으로 고립시키고 비장애인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해 무지하게 만든다.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마련은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엄** : ‘오줌권’이라는 말을 처음 보았을 때는 오줌 뒤에 권리가 붙는다는 점이 생소했다. 비장애인들은 공원, 식당, 영화관 등 어느 곳을 가든 대부분 화장실을 갖추고 있기에 원할 때 화장실에 가서 배출욕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책의 사례를 보고 알게 되었다. 장애인 화장실의 부재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잠깐 소변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출을 포기하는 정도라는 것, 장애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생활 중 하나가 장애인에게는 보장받기를 주장해야하는 권리라는 것이 이 사회의 불평등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오줌권에 대한 토론을 하던 중 장애인 친구를 둔 조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외출하는 곳은 대부분 장애인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확인 되어야하기에 늘상 비슷한 곳, 같은 곳을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중에서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존재한다거나 계단 위에 만들어 놓는 등 장애인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구색만 갖춘 곳이 다수라고 한다. 하지만 그로인한 부당함과 번거로움은 전부 장애인이 짊어지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인식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식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와 행정적인 문제, 나아가 사회적인 구조와 국가가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전부 문제가 아닌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 : 화장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인 친구와 함께 화장실을 가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가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마음 놓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다.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장애인 화장실이 복지관 건물 3층에 있었다. 화장실에 휠체어로 들어가려는데 통로가 너무 좁아 들어갈 수도 없는 곳도 많았고, 계단으로 이루어져 올라갈 수 없던 곳도 있었다. 장애인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나라에

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마련되어야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권리가 필히 보장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박** :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 사회는 사실 차별의 공간일 수 밖에 없다. 그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대하는 것이 차별적이라기 보단, 그 시스템 자체가 이미 장애인을 수용하지 않아 생기는 차별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애초에 도시계획을 기획할 때부터 국가나 행정은 장애인과 같은 약자를 고려한 도시를 구획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 나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혹은 개선한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9년 04월 02일

참가자대표 : 유*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사, 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4월 23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엄**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유*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박**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div data-bbox="507 703 927 1261"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480 1357 799 1391">TOPIC 1. 장애인 통합교육</p> <p data-bbox="480 1442 1398 1816">유*: 나와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이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통합학급은 우리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삶을 목격하고 그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과도한 배려는 오히려 장애인은 무시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선을 만들고 배우는 과정을 통합학급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통합하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 data-bbox="480 1868 1398 2065">엄*: 장애인 교육 시설은 유난히 적은 숫자이다. 지역마다 장애 아동의 숫자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 그들은 교육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강서구 특수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대두되었는데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혐오가 잘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의 정도라면 통합 교육</p>							

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합교육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수도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김** : 통합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무엇이 다를까. 나는 내 친구가 어렸을 때, 장애인이 되어서 같이 생활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장애인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약자에 대한 배려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통합교육이 비장애인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건 내 경험에 비추었을 때,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책에서 '강서구 특수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분통이 터졌다. 장애는 언제 누가 가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사람이 참 이기적이고,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함께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같이 배우고 생활해야 타인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다. 어쩌면 통합교육에 반대하고 특수학교조차 세울 수 없게 하는 건 애초에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격리시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그렇기에 통합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박** :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차이는 사실 그 자체의 특성의 차이이기 보단, 서로 분리되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서로에 대해 서로를 알지 못하게 하는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통합교육의 장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는 결국 같다는 인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장애인의 차별이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OPIC 2.탈시설의 문제점과 해결점

유* : 우리 사회는 평균에 속하지 못하면 밖으로 내몰리고 만다. 장애인들은 보통의 기준을 넘지 못해 수용시설에 갇혀버린다. 원래 수용시설의 취지는 장애인의 자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용시설은 외곽으로 몰려 사회와 단절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형태는 장애인들을 더욱 고립 상태로 밀어 넣고 있다. 고립 상태를 벗어나고자 탈시설을 하게 되면 냉정한 사회와 마주하게 된다. 탈시설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장애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이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겪는 문제는 장애인 시설 부족도 존재하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사회가 규정한 보통에 속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질감 있는 존재로 치부해 버린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엄** : 사회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에 하루의 한번이 겨우 넘을까 말까의 확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이 뒤따라왔다. 분명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구성원이며 그들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도 그들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그들을 보려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보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려는 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김** : 예전에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거리에서 장애인이 돌아다니질 않아서요.” 이게 말일까. 애초에 사회에서 장애인을 시설화하며 격리시킨 것이

다. 함께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사회의 주체를 비장애인으로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장애인이 비장애인은 수십번도 더 밟았던 땅을 단 한번도 제대로 밟을 수 없다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다. 사회는 격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한다. 탈시설화가 바로 그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장애인 친구가 있는 입장으로 어느정도의 반대의사가 있다. 탈시설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시설화가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까지의 과도기를 내 친구가 겪어야 한다면 끔찍하다. 그 과도기에서 장애인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탈시설화 과정에서의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 : 탈시설을 하게 되었을 때의 비용, 만만치 않다. 장애인 돌봄 복지 확장서부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흡수되기까지의 시민들의 인식개선까지,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책을 끝내며 느낀점>

유* :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솔직히 말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사회에 저항하고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목소리에 귀기울여할 때이다. 사회는 계속해서 집단을 분류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문제뿐 아니라 계층, 성별, 학벌 등으로 내 집단과 다른 집단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있다. 사회는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화합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엄** : 첫 회기에 준비한 토론 주제 중 하나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부분이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를 결함 또는 미달이라고 여기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의 장애를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그동안 누군가의 정체성을 폄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을 정상, 장애인을 비정상이라고 보는 시선들은 존재한다. 또한 도보와 건물, 모든 사회 시설이 비장애인에게 맞춰 있다는 점도 조원들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깨닫게 되었다. 비장애인이라는 다수에 속한 본인은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장애인들에게는 이용하기 어렵고 꺼려지는 존재이고, 울퉁불퉁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도보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것 등등 조원들과 서로가 떠오르는 것들을 나열하다보니 사회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했다. 다수를 위한 시설과 환경도 좋지만 소수 또한 그것들을 누리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사회 넓게 퍼져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척은 그들을 더욱더 고립되게 만들 뿐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미 그들을 고립시킨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떠올려보면 하루 종일 외출하여도 마주치는 장애인의 수는 손에 꼽을 만큼이다. 장애인들이 소수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 그리고 다수의 비장애인들이 그들을 사회에 나올 수 없게 고립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느꼈다. 그들과의 마주침이 적을수록 비장애인들은 점점 더 그들에 대해 무지해지고 자신들과

는 관련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비장애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 또한 그들의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김** : 장애라는 주제는 내게는 '주제'라는 그 안에서만의 의미가 아니었다. 내 친구의 이야기였고, 나의 이야기였다. 책을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읽고 또 읽었다. 읽으면서 '디보티즘'이라는 용어도 알게 되어 신선했다. 내 친구가 장애인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고 생각보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토론을 하면서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위로받으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게 정말 좋았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둘씩 가득찬다면 나와 내친구가 영화를 보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편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날이 앞당겨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 과정에서 느꼈지만 장애인들은 사회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회로부터 실격당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다.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그들에게 실격이라는 판정을 지을 수 있을까. 앞으로의 사회는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책과 토론하며 들었다.

박** :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장애인과 같은 약자를 보면 도와 주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리고 덧붙여 그들은 우리와 생김새가 조금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니 이들을 차별해서도 안된다는 말들도 수도 없이 들어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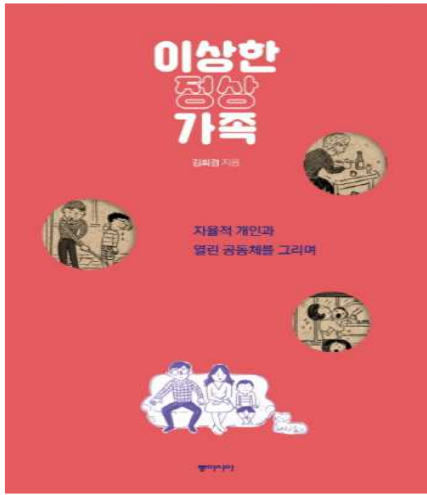
그런데 막상 이러한 이론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도, 정작 현실에서의 장애인을 만날 때, 늘 불편한 괴리감을 느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독서모임을 통해 이론과 현실사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가져야 할 자세와 그런 방법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019년 04월 23일

참가자대표 : 유*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사.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04월 30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엄**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유*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박**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TOPIC 1.체벌 대하여</p> <p>유*: 어린 시절 우리가 체벌을 당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꼭 체벌만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수단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유를 모른채 단지 체벌이 무섭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춘 것이 아닐까? 체벌을 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설명하기 귀찮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 화나는 감정이 체벌로 행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입장에서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체벌이 필요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체벌은 폭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제는 훈육이라는 포장을 벗고 체벌과 폭력을 놓고 생각해 봐야한다.</p> <p>엄**: ‘사랑의 매’ 라는 것을 단어 자체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한 훈육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아이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반성하게 하려면 과정과 그 따른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는데 폭력은 그러한 것 없이 아동에게 공포심만 심어주는 방법이다. 이는 아이의 훈육뿐만 아니라 사회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도, 어떠한 행동을 할 때도 아이에게 심어진 공포는</p>							

계속해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아이에게 올바른 훈육을 행하고 싶다면 폭력이 아닌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주는 방법이 당연하지만 완벽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마음대로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고, 폭력으로 누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며, 가장 잘못된 것 중 하나라고 생각됐다.

김** :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체벌은 그저 폭력을 자신의 자식에게 하는 부모가 못된부모가 되기 싫어서 하는 포장지 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과연 맞아서 배운아이가 어떤 걸 배울 수 있었을까. 그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배웠다기보다 폭력적인 부모를 배웠을 것이다. 더는 부모의 폭력이 체벌이라는 이름 아래 용인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박** :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체벌은- 분명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당장 때를 쓰고 보채는 아이를 그치게 만드는 방법에 있어, 체벌만큼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TOPIC 2. 아동학대의 현실적인 예방/대처

유* : 가정 내의 아동학대는 부모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즉,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아이의 불행이 시작된다.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개인성을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어른들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조정하고 통제하려한다. 이런 인식이 아동학대를 불러일으킨다. 부모는 아이의 조력자이지 통제자가 아니다. 올바른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고취시키고 아동의 눈높이 맞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엄숙민 : 아동학대가 여전히 낮은 신고에 머무는 이유로 집단 이기주의가 가장 크다고 보았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줄여가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신경써야하거나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 집단 이기주의가 심해질 수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아동학대 아동들은 사각지대로 물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와 아동학대 신고 등의 교육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물에 빠진 아이가 살려달라고 해서 물 밖으로 꺼냈는데, 아이의 옷이 마르고 괜찮아 보이면 다시 그 물속으로 넣는 것이다. 살려 달래서 신고를 받고 보호를 해도, 결국은 갈 곳 없는 아이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다. 교육을 부모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고, 부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깨는 것이다.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법은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강경한 조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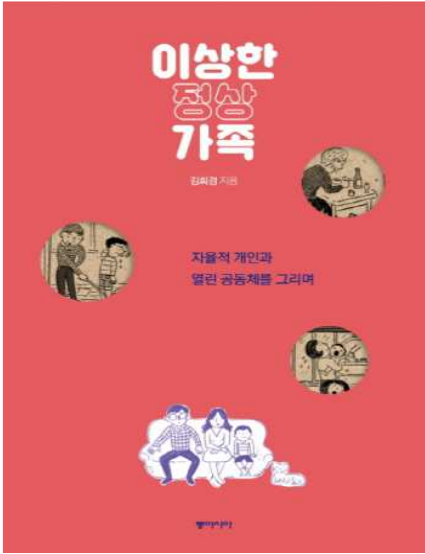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 아동학대의 현실적인 대책은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이유는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모든 부분에 있어, 부모가 이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는 부모가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게끔 제도와 교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04월 30일

참가자대표 : 유*

복클럽 운영보고서

복클럽 팀명	사.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05월 07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엄**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유*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박**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TOPIC 1.보육기관의 cctv 설치</p> <p>유*: CCTV를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한다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눈에 띄지 않게 덮어두는 형식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의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교사 환경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이다. 많은 인원을 한 선생이 수용하는 것은 육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까지 크게 다가온다. 이런 환경은 아동에게도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아이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CCTV 설치에 교사와 부모간의 불신감만 키울 뿐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없다. 비리유치원을 청산하고 건강한 환경의 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교사와 아동에게 모두 이로운 일이라 생각한다.</p> <p>엄**: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서 아이들의 학대 방지가 우선이냐 보육교사들의 인권 보호가 우선이냐의 의견 대립이 굉장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학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의 증거로 CCTV가 제시 된 사례는 이미 많이 있다. 이것</p>							

만 보아도 CCTV를 설치해야 할 이유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보육교사들을 무조건적인 잠재적인 가해자로 본다는 것이 아니다. 유아기의 아동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 있던 사건을 각색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보육교사의 방패막이 되어 줄 수도 있는 물질적인 증거를 지지한다는 의견이다. 올바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아동과 보육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설치와 함께 보육교사들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도 확실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 : cctv를 설치해야하는지는 반반의 의견이다.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건 좋은 의미이지만, 사사건건 감시를 당해야하는 보육교사의 상황도 이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cctv가 아동학대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그래서 cctv도 아동학대 방지의 측면에서 일리있는 말이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 뒤의 이야기여야 순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박** : 과연 cctv가 최선의 방안이었을까 의심이 든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감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서로 믿음을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교사나 부모 모두에게 스트레스받는 일에 불과하다. 교육의 현장에서 범죄의 가능성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감을 잃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판옵티콘의 예이다.

TOPIC 2. 한국식 가족주의 문제점

유* :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성은 무시된다.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 하나된 목표를 따르고 개인의 자유는 목살된다. 이것이 한국식 가족주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혈연'이라는 공통점으로 끈끈이 묶인다. 진심이 아닌 의무로써 묶여있는 가족이 정말 가족이라 칭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가족주의는 집단주의를 만든다. 우리 집단이 아니면 배척하는 문화는 사회를 양극화 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족주의,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성이 존중되는 집단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엄** : 한국의 유교문화와 가부장적인 사회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자식을 자신의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 생각하는 것, 부모에게는 무조건적인 효를 행해야 함을 강요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인 자식, 형제, 부모로서의 의무만 강요하고 개인으로서의 인격과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또한 문제이다. 개인을 억압하여 맞춘 가족이라는 틀이 과연 정상적인 가족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불편한 가족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개인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 한국은 가족이라는 아래서 폭력이 너무나도 쉽게 행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가족은 '희생'이 쉽게 강요되고, 개인성은 철저히 무시된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일까. 한국에서의 가족구조는 철저히 뜯어고쳐서 개인이 스스로의 목적이 존중받는 구조로 나아가

야한다. 그게 진정한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상적인 가족에서는 아동의 의견도 목살이 아닌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 : ‘피는 물보다 진하다’ ‘결국, 가족밖에 없다’와 같이-한국은 특히나 가족주의적 질서를 중요시 한다. 이는 진심으로 가족을 애정하고 존중한 문화에서 기반한 것이 아닌 오랜 전통에서 내려오는 유교적인 문화의 토대위에서,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를 가지려는 구성원은 있는 그대로 봐 줄 수 없고, 그렇기에 한국의 가족주의는 개인성을 묵살하는 폭력적 형태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진정 가족 구성원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각각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책을 끝내며 느낀점>

유* : 아동의 행복은 그 사회의 행복을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사회 행복도가 낮으면 아동의 행복도 낮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해 오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 또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라고 하며 어른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고 통제하려 한다. 개인성과 자율성은 지닌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와 부모의 종속되어 성장한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아이를 낳으면 다시 그 과정이 반복된다. 아동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며 나 자신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고 약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아동이 행복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엄** : 현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개인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양성은 여전히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 특유의 집단 문화가 강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다수에 속하지 못하는 것만큼 비정상적으로 취급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범주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다수가 정상의 범주를 마음대로 정하고 그 범주에 들지 못하면 비정상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다수이기에 소수인 집단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한다는 것만큼 비정상인 사회의 모습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사회에서 다수에 속해있었기에 그들의 차별과 인식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었다는 점을 반성할 수 있었다.

김** :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일까. 최소한 정상이 되기 위해서라면 상식적으로 굴러가야하지 않을까. 가족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족들은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서 생각하면 많은 비정상인 가족들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는 가족을 너무 개인사로 취급하고, 가족은 가족에게 단합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우린 앞으로 어떤 가족을 만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사회는 어디까지 개인사로 취급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박** : 아이가 태어나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타인은 바로, 엄마, 아빠, 즉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의의에 대해 우리는

섬세한 관점으로 고찰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나' 건강한 공동체가 조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모임을 통해 가족이 갖는 의미를 돌이켜 볼 수 있어서 뜻 깊었다.

2019년 05월 07일

참가자대표 : 유*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사.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05월 21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엄**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유*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박**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div data-bbox="507 703 914 1160"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480 1261 932 1290">TOPIC: 사회 속 성폭력-미투의 배경</p> <p data-bbox="480 1346 1398 1843">유*: 과거의 남성 중심 고용시장에서 여성은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았다. 그 속에서 성폭력은 너무나 만연했고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성도 모두 직업을 가지는 세상이 왔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 기존의 남성 거대권력과 위계조직 문화에 맞서 피해를 알리고 권리를 찾아야한다. 이런 작은 용기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런 용기있는 외침을 사회는 외곽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며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 용기있는 피해자의 외침을 조롱하고 반문하며 2차 가해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 사회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끊임없이 희생이 요구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과정은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는 외쳐야 한다.</p> <p data-bbox="480 1899 1398 2051">엄**: 사회 문제로 한동안 뜨거웠던 이슈였던 ‘미투’. 나 또한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담은 영어 ME TOO를 한국어로 바꾼 것이다. 미투가 발생하며 여성들을 성범죄 피해자의 상처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한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한국 여성들은 비슷한 피해가 있기 때문이라</p>							

고 생각했다. 이 범죄는 상하수직 관계, 생면부지의 관계, 일면식만 있는 관계 등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고 90% 이상은 여성이 피해자이다. 한국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며 사회적인 약자로 여성을 꼽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사는 것이 바탕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보았다.


김** : 미투의 배경은 권력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대부분 사회에서 남성보다 하위에 있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성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성을 성폭력의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사회는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지울 수 없는 상처' 등등의 말로 2차가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여성에게 정조관념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참 치졸하다. 계속된 악순환이다. 여성이 사회에서 윗자리를 점해야만 이 고리는 깨진다. 그러나 여성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유리천장으로 막는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여성만의 싸움이 아니다. 같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성별에 관련없이 같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외쳐야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여성을 향한 백래시만 갈수록 늘어난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이제는 성별에 상관없이 성평등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저항 및 고발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권력,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자리 잡은 나라일수록 피해자는 제 스스로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힘들어진다고 한다. 누군가는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왜 제때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기도 하는데- 이는 권력과 집단 속에 놓여있는 힘없는 약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지극히- 권력적인 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05월 21일

참가자대표 : 유*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사.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05월 28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엄**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유*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박**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TOPIC: 젠더폭력-트랜스젠더퀴어</p> <p>유*: 그동안 우리는 젠더라는 규정 하에 자기 자신을 정의했고 남을 판단했다. 젠더를 통해 권력을 행하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며 억압받기도 한다. 자율성은 지닌 인간이 젠더라는 규정에 속해 차별하고 차별받는 구조는 더 이상 파괴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젠더는 우리는 행동이나 역량을 제한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퀴어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별 속에서 태어났다. 자신의 정체성을 태어날 때 주어지는 생물학적 요소로 규정되어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 속에서 나타난다.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일반화된 규정으로 개인 재단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며 사회적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 따르지 않는 자를 혐오한다. 사회적 젠더개념아래 서로를 규정하는 사회문화는 이제는 타파되어야 한다.</p> <p>엄**: 페미니즘 운동이 사회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로 구분한 혐오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퀴어라는 개념이라는 것 또한 이슈로 대두 되었다. 처음듣는 용어들도 많았고 생소한 사랑의 형태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가름해야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토론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러한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이성애자로서의 삶이기에, 페미니즘을 알지 못했기에</p>							

평안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별에 대한 존중과 평등,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 젠더에 대한 이슈가 이틀에 한 번 꼴로 보일만큼 대한민국에서 젠더에 대한 관심은 크다. 젠더가 대두되는만큼 소수자에 대해 관심도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토론에서 트랜스젠더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다. 지금까지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디가서 이야기하거나 평상시에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사랑이라는게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사회가 이성이라는 것만을 사랑으로 취급하면서 차별을 만들고 있었던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들도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 젠더폭력은 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심에서 발생한다. 젠더로 인한 혐오감은 사회를 이원화시키고 분열하게 만든다. 태어날 때 주어지는 단순한 생물학적 요소로 서로를 차별하는 젠더폭력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젠더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질서를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젠더의식을 통해 각자 스스로가 규정하는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북클럽을 마치며>

유* : 사회 내에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보면 그 사회의 권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책모임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 여성의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주제로 좀 더 깊이있는 이해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토론을 진행하며 내 생각의 틀에 갇혀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각적 접근방법을 이해할 수 좋은 경험이 되었다. 다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서로 얘기하며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심화된 토론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더불어 매 회기마다 활발하게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며 다양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엄** : 북클럽 토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면에서 보는 사회의 모습들, 그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저는 삶의 대부분을 다수에 편승하여 살아왔기에 소수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저에겐 관심이고 생각에 그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도, 권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무지함은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로 다가갔다는 것을 깨닫고부터는 이러한 사회에서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북클럽 활동 중 미흡했던 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은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지만 의견을 존중하며 회기를 이어온 점이라고 생각한다.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북클럽 조원이 매 회기 참석하고, 토론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활동에 참가한 점이 제일 칭찬하고 싶

은 부분이다. 이 글을 빌어 북클럽 조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김** : 이번 북클럽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알게 되었다. 특히, 페미니즘과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다. 알게 모르게 나도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음에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고 배려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같다. 북클럽이후에 사회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마주친다면 외면하는 것이 아닌 한마디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들었다. 그동안 북클럽을 하면서 주제에 따라 적극성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스스로 반성했다. 다른 조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부분이 즐거워서, 토론할 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다. 우리 조원들이 다 함께 책읽고, 점심 굶어가면서 토론했던 그 날들을 다 칭찬해주고 싶다. 봄에서 초여름이 되기까지 우리는 뜨겁게 읽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박** :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어느 학자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한다.

이번 북클럽을 통해 우리 시대- 늘 상 배제되었던 (장애인, 아동, 여성)을 고찰 해 봄으로서 모두가 동등하고 건강하게 공존 할 수 있는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2019년 05월 28일

참가자대표 : 유 *